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수산업을 살리자

2006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우리 수산업은 어가수 13만 4천여 가구, 어가인구 72만 5천여명, 어업종사가구원은 29만5천여 명이었다. 약 25년의 시간이 흐른 뒤, 2006년에는 어가수가 7만 7천여 가구, 어가인구는 21만 2천여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6년의 결과는 전년과 비교하여 어가수는 3.7%, 어가인구는 4.3%가 각각 감소한 수치이다.

감소의 주된 이유에는 어가인구의 고령화가 있지만 전출 및 타산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어가수가 감소되는 것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연령대별 어업종사자분류를 통해 파악한 어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말 어업종사자는 50~59세에서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40~49세가 22.8%, 65세 이상이 22.2%의 비중을 나타낸다. 국가의 인구 상황을 논할 때, 보통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일 경우 노령사회로, 12% 이상을 노령사회로 본다. 이런 기준이라면 어촌은 이미 노령사회의 기준도 상당히 초과한 위중한 상태인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로 우리의 수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말았는가하는 절망을 하게 된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전체산업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국민 식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식량산업과 어촌어항의 꿈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산업분야와 관련한 국민적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수산업이 단순히 바다에 나가 고기나 잡는 그런 산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휴양지로서 또는 해양문화관광단지로서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어촌어항이 있다. 과거와 같은 수산물 생산기지로서의 어촌어항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과 함께 휴양·

레저·관광·문화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른바 종합어항으로서 한 차원 높은 개념의 수산업 분야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항상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음에서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만약 수산업이 사양산업이라면 일본은 결코 지금과 같이 수산업 조직을 강화하고 어촌어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흔히 바다를 가리켜 어머니의 품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식량자원으로서 갖는 수산업의 가치와 미래산업으로서의 가능성, 거기에 온 국민의 인식처로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으로 어촌어항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산업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의 국민성도 한몫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성과물을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조급성, 바로 그것이다.

차제에 수산인 모두가 이 점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수산인상을 우뚝 세울 필요가 있다. 이의 출발점은 수산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식을 갖고 하나가 되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숱자를 동원해 떼를 쓰거나 산업이기주의를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 우리의 어촌어항은 앞서 말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가능성에 모두들 가슴이 부풀어 있을 때 이를 기회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노력해 보자는 뜻이다.

어업인에서부터 업계 관계의 수산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자신의 이익은 잠시 물러놓고 10년, 20년, 혹은 1백년 뒤를 생각하는 그런 구상을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업과 수산인의 위상을 재정립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그런 각오가 절실히 필요하다.

거듭 말하자면 그 뿌리는 어촌어항이다. 모든 개념과 이론과 모델의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빛나는 수산업의 새 역사를 쓴다는 각오를 가지고 모든 수산인이 뭉치고 힘을 길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